

그랜드코리아레저, 튀르키예·시리아에 성금 전달



외국인 카지노 세브릭을 운영하는 게이밍 공기업 그랜드코리아레저(GKL, 사장 김영산)는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진 피해 이재민을 위한 구호 성금 2048만 원을 대한적십자사에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김 사장과 그랜드코리아레저 임직원이 급여에서 일부를 공제해 성금을 모으고 거기에 회사가 추가 부담하는 매칭 그랜트 방식으로 마련됐다. 성금은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이재민 임시보호소 운영과 구호물품 및 식량 보급, 의료지원 등 구호 활동에 사용될 예정이다.



제주삼다수, 25주년 기념 '한라산 에디션' 출시

제주삼다수가 출시 25주년을 맞아 '한라산 에디션'(사진)을 선보였다. 제주 푸른 바다를 상징하는 파랑, 봄꽃의 분홍과 노랑을 주요 색상으로 제주삼다수 수원지인 한라산을 표현했다. 또 라벨에 표현된 물줄기와 물방울 모티브는 25주년을 축하하고 고객 사랑에 보답하는 제주개발공사의 다짐을 표현했다. 회사 측은 “향후 최고의 품질은 물론, 친환경 활동 및 지역사회와 동행 등 고객과 상생의 길을 만들 것”이라고 했다.

건강 올레길 | 우리동네 주치의의 건강학

골다공증 환자, 임플란트 하기 전 상담 필수 “골유착 실패 가능성 높아…턱뼈괴사 위험”

우리 몸 안에는 뼈 형성을 촉진하는 조골세포와 뼈를 파괴시키는 파골세포가 있다. 나이가 들면 파골세포의 생성 속도는 빨라지는 데 반해 조골세포의 재생 속도는 느려진다. 이것이 심해지면 뼈의 밀도가 낮아지고 약해지면서 골다공증이 생기게 된다.

현재 골다공증 치료는 파골세포의 활동을 억제하는 스토포네이트 계열의 약물을 복용하거나 투여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약물 성분은 발치, 임플란트 등의 잇몸뼈와 관계된 치과 치료에 영향을 준다. 특히 임플란트를 식립할 때 잇몸뼈의 골유착 과정이 실패할 가능성이 커지고, 심각하면 턱뼈괴사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임플란트는 잇몸뼈에 식립되고 그 주변에 뼈세포들이 자라나 골유착을 일으켜야 성공했다고 할 수 있는데, 골다공증 약물이 이를 더디게 만들어 수술 부위가 낫지 않고 오히려 턱뼈가 썩는 부작용을 유발하는 것이다. 2013년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에 발표된 논문 따르면, 비스포스포네이트 처방 환자 60만 명 중 254명(0.04%)에서 턱뼈괴사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골다공증 환자는 임플란트 치료 시 의사에게 복용 중인 약물에 대해 알리고 시술 전 의료진과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내과 주치의와 상담하여 치료 치료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혈액검사와 뼈의 골대사 상태를 검사하여 정보를 치과 의사에게 제공하는 것이 좋다.



성수동 우치과과 강일남 원장

“호텔·리조트 흑자 전환…파이브가이즈 1호점 윤곽”

호텔·리조트, 지난해 매출 6050억
투숙률도 코로나19 이전 수준 회복
펫 객실 운영·로봇 서비스 큰 호응
‘신선한 먹거리’ 파이브가이즈 기대



김동선 본부장

김승연 한화 회장의 삼남인 김동선 한화호텔앤드리조트 전략본부장 겸 한화갤러리아 전략본부장이 공격적인 경영 행보로 주목받고 있다

먼저 한화호텔앤드리조트가 2022년 4년 만에 흑자로 돌아섰으며, 투숙률도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한 것이 눈에 띈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의 3월 잠정 집계에 따르면, 2022년 사업장 매출은 약 6050억 원(에스테이트 부문 제외)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의 6486억 원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100억 원 이상으로 2018년(162억 원) 이후 처음으로 흑자 전환했다.

이는 김 전략본부장이 주도적으로 추진한 디지털 서비스 확대 및 펫 객실 운영 등 젊은 고객 유치 전략이 성과를 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화리조트는 지난해 7월 마티에 오시리아를 시작으로 설악, 평창, 해운대, 경주, 대전 등 계열 사업장에 로봇 서비스를 도입했다. 태플릿 PC를 통해 룸서비스를 이용하는 디지털 컨시어지 서비스를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밖에도 애플리케이션 모바일 키 등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를 전 사업장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러한 고객 편의 개선은 투숙률 증가로 이어져 지난해 투숙률이 전년 대비 15%p 상승했다. 주요 사업장(설악·거제·산정호수·해운대)의 경우, 같은 기간 투숙률이 18%p 늘었다.

여기에 젊은층을 중심으로 반려 인구가 늘어나는 분위기를 반영해 지난해 10월 한화리조트 평창에 첫 ‘펫 객실’을 도입한 것도 주요했다. 이달 말 제주에 펫 객실을 추가로 열 예정이며, 향후 반



김동선 한화호텔앤드리조트 전략본부장 겸 한화갤러리아 전략본부장의 공격 경영이 주목받고 있다. 한화리조트 설악 소라노에서 로봇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위)과 6월 말 서울 강남역 인근에 문을 여는 파이브가이즈 국내 1호점 조감도. 사진제공 | 한화호텔앤드리조트·한화갤러리아

려동물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회사 측은 “기존 가족 단위 고객과 더불어 젊은층을 집중적으로 공략할 계획”이라며 “향후 지속적인 변화로 흑자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파이브가이즈 1호점, 6월 강남에 뜬다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전략본부장의 야심작으로 불리는 미국 햄버거 브랜드 파이브가이즈도 윤곽을 드러냈다. 6월 말 서울 강남역과 신논현역 사이 강남대로 한복판에 국내 1호점을 오픈한다. 전용면적 618㎡ 2개 층이며 좌석은 150여 개 규모다. ‘보다 많은 고객들에게 파이브가이즈를 선보이고 싶다’는 의지를 담아 다양한 연령층이 모이는 강남역 인근에 1호 점포를 열게 됐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파이브가이즈는 지난해 2월 갤러리아에 부임한 김 본부장이 브랜드 검토부터 계약 체결까지 주도적으로 진행한 첫 번째 신사업이다. 그간 브랜드 유치 전 과정을 진두지휘한 만큼, 앞으로도 김 본부장을 중심으로 조리법부터 서비스까지 오리지널리티를 최대한 살린다는 방침이다. 특히 조리 시 신선한 재료 사용을 고집하는 파이브가이즈의 뜻을 따라, 미국 현지 제품과 동일한 품질을 구현하기 위해 안정적인 재료 공급망 확보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이는 평소 ‘건강한 프리미엄 먹거리’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해온 김 본부장의 철학과도 결을 같이 한다. 김 본부장은 브랜드 론칭을 앞두고 최근 본인 SNS 계정에 파이브가이즈 관련 콘텐츠를 연이어 올리는 등 홍보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회사 측은 “파이브가이즈는 미국을 중심으로 유럽, 아시아, 중동 등 23개 국가에서 1800여 개 매장을 운영 중이다. 한국은 홍콩, 싱가포르, 중국, 말레이시아, 마카오에 이은 6번째 아시아 진출 지역”이라며 “6월 1호점을 시작으로 5년 간 국내에 15개 이상의 매장을 열 계획”이라고 했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정영욱 기자 jay@donga.com

“베트남 R&D센터 공식법인 승격”…LG전자, 글로벌 전장사업 가속

“차세대 전장부품 개발 및 검증”
법인 통해 전문 인력·운영 강화
VS사업본부, 핵심사업으로 성장

지난해 영업이익의 흑자를 달성한 LG전자의 자동차 전장사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가속도를 낸다. 베트남에 운영 중이던 연구개발(R&D)센터를 공식 법인으로 승격시키는 한편, 유럽 시장 공략 강화를 위한 인증도 최근 완료했다. 올해는 생산능력을 확대해 전장사업 성장의 원년으로 삼는다는 방침이다.

●베트남에 R&D법인 개소

LG전자는 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LG전자 베트남 R&D법인 개소식’을 열었다. 이 법인은 차량용 인포테인먼트(IV)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개발과 검증을 담당한다. LG전자는 법인 설립을 통해 전문 인력 확보 및 운영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현재 750여 명인 베트남 R&D법인의 전장부품 관련 개발인력을 2024년까지 1000명 수준으로 30% 이상 늘릴 계획이다. LG전자는 이번 법인 설립으로 VS사업본부의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정승민 LG전자 베트남 R&D법인장, 오영주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대사, 이상용 LG전자 VS연구소장(왼쪽 두 번째부터) 등 주요인사가 참여한 가운데 ‘LG전자 베트남 R&D법인 개소식’을 진행했다.

사진제공 | LG전자

강화하는 것은 물론 자회사인 ZKW의 차량용 조명 시스템, 합작법인 LG마그나 이 파워트레인의 전기차 파워트레인 등 3대 핵심사업의 고른 성장을 바탕으로 글로벌 자동차 부품 시장에서의 입지를 굳히고, 자율주행 시대를 선도한다는 전략이다.

이상용 LG전자 VS연구소장(전무)은 “차세대 전장부품을 개발하고 검증하는 R&D 인프라와 역량을 한층 끌어올려 글로벌 완성차 고객들에게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하는 전장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것이다”고 말했다.

●유럽서 필수 인증 획득

LG전자는 올해 들어 전장 사업에 더

힘을 주고 있다. 조주완 LG전자 사장도 올해 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3’에서 GM과 마그나 등 전략 파트너와 사업을 논의하는 등 연이은 행보를 하고 있다. LG전자는 최근 유럽 시장의 필수 인증도 획득했다. 국제 공인시험인증기관인 TÜV라인란드로부터 차량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을 완료하고 인증서를 받았다.

LG전자는 지난해 흑자전환으로 본궤도에 오른 전장 사업을 핵심 사업 중 하나로 키울 방침이다. 지난해 LG전자의 전장사업을 담당하는 VS사업본부는 매출 8조6496억 원을 기록했다. 회사 전체 매출 가운데 전장 사업의 비중은 처음

10%를 넘겼다. 특히 VS사업본부는 지난 10년간의 투자가 성과로 나타나면서 연간 영업이익이 1696억 원을 기록해 턴어라운드에도 성공했다. 증권가에선 올해도 LG전자 전장사업의 고속 성장을 예상하고 있다.

LG전자 VS사업본부는 고부가 및 고성능 제품의 적극적인 수주 활동을 전개하며 매출 성장과 안정적인 수익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글로벌 완성차 업체에 공급하는 전기차 구동부품의 생산능력을 확대하며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등 전장 사업이 본격적으로 성장 단계로 진입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